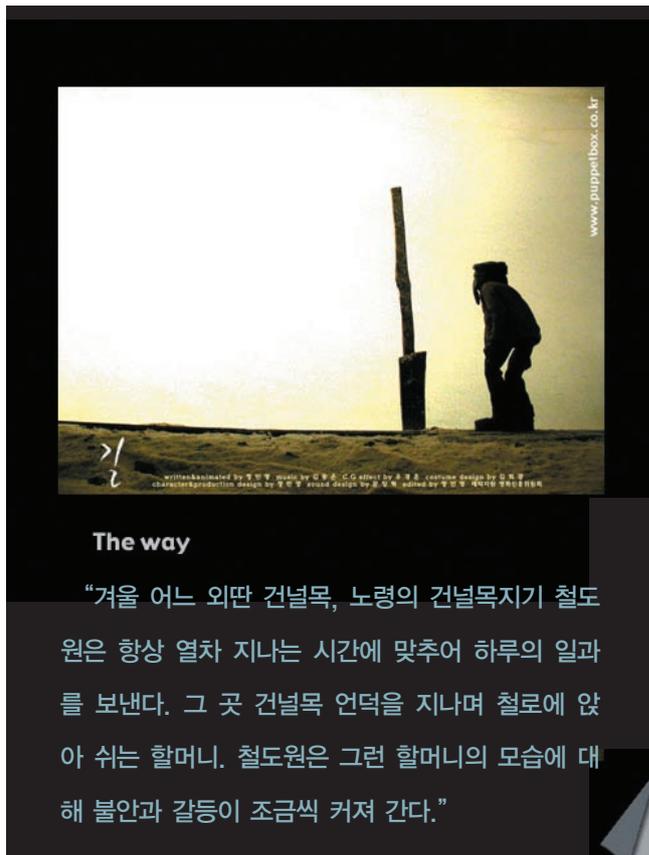


# 인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지 '길'

국제페스티벌 단편 애니 부문 잇단 수상 ...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탄력적 상상력 표현

국내 애니메이터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낭보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오세암'이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페스티벌에서 영예의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국내 단편 애니메이션들의 잇달은 수상 소식도 쏟아지고 있다. 정민영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길'도 이러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빛을 전해주고 있는 작품중 하나. '길'은 지난 4월 30일(한국시각) 폐막한 제47회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San Francis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금문상(GOLDEN GATE AWARDS)을 수상했고,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린 2004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에서 교보상을 수상했다. 러닝타임 14분 45초인 '길'은 일반적인 모션 애니메이션이 아닌 편안한 질감의 인형으로 표현된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독창성이 뛰어나고 탄력적 상상력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정해진 인생길에 순응해가며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길'을 만나본다.

글 / 신선자 객원기자



The way

“겨울 어느 외딴 건널목, 노령의 건널목지기 철도원은 항상 열차 지나는 시간에 맞추어 하루의 일과를 보낸다. 그 곳 건널목 언덕을 지나며 철로에 앉아 쉬는 할머니. 철도원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대해 불안과 갈등이 조금씩 커져 간다.”

## 기차길 모티브로 인생 담아

정민영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길(The Way)'의 시놉시스다. 철도 건널목을 지키는 한 철도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주인공 철도원이 지키는 건널목을 지나던 할머니의 죽음과 연이은 여러 사고들을 맞이하며 생기는 그의 고뇌와 갈등들을 그렸다.

인형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으로 제작된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인형을 가지고 한 프레임씩 움직여가며 찍어서 연결하는 방식이라 14분 45초의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인형으로 표현된 따뜻하고 편안한 질감을 통해 역동적이고 판타스틱한 여타의 장편 애니 못지 않은 길고도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길'은 인형이 가진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철도길에 앉아서 쉬고 있는 할머니, 기차가 도착하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도 할머니는 그 곳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다. 결국 기차에 부딪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할머니에게 기차길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일까? 정민영 감독은 “할머니에겐 기차길이 힘들어서 쉬어가는 곳”이라며 “이제는 돌아온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담았

다”고 답했다.

그렇다. ‘길’에선 길이 교차한다. 정해진 시간의 질서들을 말하는 길이 있고 인간 개개인의 소소하고 선택적인 행로들이 있다.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그 시간의 질서들이란 단지 우리의 길을 막는 건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순응하고 거쳐야 할 여행길의 정거장이다. 즉, 이 작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지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 탄력적 상상력이 던져주는 감동

정민영 감독은 끝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 인생이라는 테마를 길과 철도원이라는 소재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시골 고향집이 철로 근처에 있어 항상 기차길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을 살펴야 하고 긴장과 초조로 지내야 하는 건널목지기 철도원의 일상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와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택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사람이 갑작스레 맞이하는 사건, 그리고 그 갈등과 고뇌들 속에서 한 인물이 스스로 어떻게 정화돼 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 있게 한다는 게 그의 부언이다.

‘길’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단편애니메이션 사전제작지원공모에 선정돼 제작비를 지원받아 2002년 하반기에 초기 기획에 돌입, 5개월여 정도의 기획기간을 거쳐 2003년 가을쯤에 마무리됐다. 제작자측은 실제 작업기간도 5개월여가 소요돼 총 제작기간은 1년 가까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길’이 상영된 영화제나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 수많은 관객들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중적이진 않지만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된 단편 애니메이션 ‘길’의 높은 작품성을 실감케 한다. 각종 영화제를 통해 이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저마다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데 한 목소리다.

### 각종 국제 페스티벌 잇단 수상

이러한 매력으로 인해 ‘길’은 잇단 국제페스티벌에서 호응을 받으며 각종 페스티벌에 경쟁부분에 당선되는가 하면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기도 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사전제작비 지원을 받아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동년 하반기에 첫 소개된 정민영 감독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길’은 2003년에 부천 국제대학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부문, 서울 독립영화제 단편경쟁부문에 진출했고, 2004년 전주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도 상영됐다. 또한 2004 도쿄 국제애니메이션페어 학생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상





(Notable Award)을 수상했고, 샌프란시스코 국제필름페스티벌 애니메이션부문에서 금문상도 수상했다. 지난 5월 9일 막을 내린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에서 교보상도 수상했으며, 2004 브라질 아카데미 파노라마 부문,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단편경쟁부문, 서울 미장센 단편영화제 단편경쟁부문으로 경쟁작으로 선정돼 일반인들에게 선보여졌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나이든 역무원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수려한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이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길'. 이 작품은 이처럼 내노라하는 대부분의 국제 페스티벌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경쟁작으로 선정돼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독립영화의 독창성과 창의성, 열정을 평가기준으로 시상되는 금문상 수상은 국내 협소한 공간에서도 묵묵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터들에게 앞으로 모범이 될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 인형기법의 퍼펫 애니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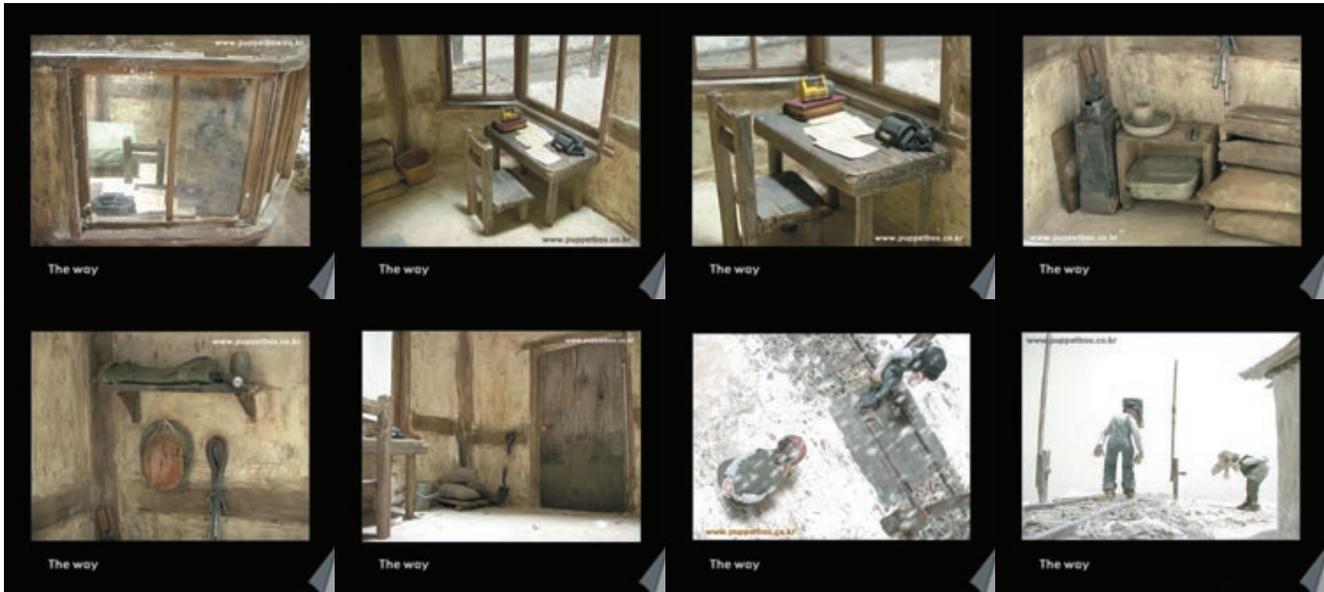
워낙 어릴 적부터 영화에 대한 매력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 그림그리기와 장난감들을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게 퍼펫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는 정민영 감독. 1973년 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에 재학중인 정민영 감독은 이전 작품으로는 2002 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 가작, 2002 레스페스트 코리아 경쟁부문, 2003 도쿄 국제 애니페어 학생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Say My Name>(2002) 이라는 필모그래피의 소유자다.

그는 “'길' 을 포함해 이제 단편 두 번째 작품을 끝냈고 이제야 스스로가 원하는 퍼펫 애니메이션 모양새의 딱 50% 정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아직까지는 인형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살피고 있고 또 인형들에게 스스로도 많이 놀라면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다. 영화제 수상은 다음작업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용기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더 나은 작품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겸손을 잊지 않은 채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 감독은 ‘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터득했고 다양한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게 됐으나 아쉬움도 많다고 전했다.

정 감독은 “작업공간이 협소해서 세트 제작이 빈약했다. 때문에 그림의 시점들도 시원스럽게 뻗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





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사실 기획부터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 왠지 뻗뻗한 느낌의 작품이 된 듯하다”고 자평했다.

애니메이션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있던 하지만 아직 독립영화 작가들에게는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재주를 지닌 애니메이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빛이 바래진 보석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정민영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길’은 이 땅의 애니메이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정한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다양한 가능성 내재한 ‘실험천국’

정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산업적인 자본논리나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들로 얘기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즐거움 보여주기’가 선취된 문화로서의 바탕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애로사항이 없진 않으나 아직까지는 단편이 매력이 있고 스스로 얻어지는 것도 많아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냈을 때 작품수도 늘리고 시간도 늘려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길’을 통해 주목받는 작가군단에 입단한 정민영 감독은 올

해는 그의 세 번째 작품이 될 ‘Come on Daddy’라는 파일럿을 꿈꾸는 아버지가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겪는 코믹스런 판타지 드라마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기획에 들어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 ‘Come on Daddy’라는 각축판타지드라마에 대해 정 감독은 “본의아니게 조금은 우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표현하게 됐던 기작품에 비해 현재 준비중인 차기작은 밝고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작품 역시 영진위의 지원을 받아 제작비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게 그의 부언이다.

정해진 인생길에 순응해가며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정민영 감독의 단편 애니 ‘길’, 끝없이 고뇌하며 갈등하는 순간 순간이 사실은 삶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는 순간으로 보다 강해지고픈 인간의 욕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은 정말 곧은 고속도로가 될지 꼬불꼬불 얽힌 골목길이 될지 알 수 없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정답을 알 수 없는 길이다.

아직은 배움터에서 더 많은 세계를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민영 감독이 진정한 애니메이터로서의 삶을 고속질주할 수 있는 길고도 넓은 길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한편 정민영 감독의 작품세계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그의 홈페이지([www.puppetbox.co.kr](http://www.puppetbox.co.kr))를 방문해 확인해 볼 수 있다. 

